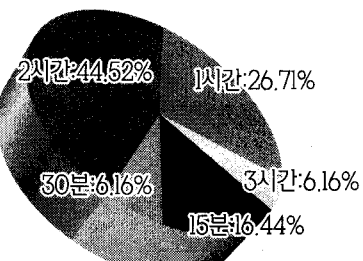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수원캠퍼스 통학시간

지난 14일 수원총학생회에서 일반학생 8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통학에 소요되는 평균 편도시간'에 대한 질문에 15분인 학생이 14명, 30분이 54명, 1시간이 234명, 2시간이 390명, 3시간인 학생은 54명이었다. 학생들은 하루평균 2시간 이상을 통학하는데 소비하는 셈이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서울·경기도가 집이었다.

경희, 그 한 주의 역사



1969. 6. 2 교수회관 식당 개관 기념 '메스 오피 파티' 열려
1975. 6. 6 인공관절 대체수술 국내 최초로 성공
1976. 6. 3 제1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1979. 6. 7 - 6. 10 I.A.U.P. 방콕이사 회 개최
1985. 6. 3 체육과학대학생 250여명 체육교육관 앞에서 시위, 선배 체벌, 자체내 재정 등 7개항의 사정을 요구했다고
1987. 6. 1 서울 복지위원회 학교암 업소에 대한 불매 운동 결의, 가격 인하 협조 공문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라고

<1면 기획기사에서 이어짐>

그런가 하면 수원캠퍼스 수업과 관계자는 "운영계획안만 완성되었을 뿐,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공표한 바 없다"고 말해 이 제도의 구체적 운영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 밖에 기업체가 요구하는 필수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C.R.S. 인증시험 또한 그다지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 96학년도 입학생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캠퍼스의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구분	영어분야		전산분야	
	응시인원(명)	합격인원(명)	응시인원(명)	합격인원(명)
97학년도 1학기	114	29	83	12
97학년도 2학기	234	102	195	42
98학년도 1학기	212	미확정	264	미확정

표에서 알 수 있듯이 98학년도 1학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다면 600명을 넘는 학생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두 과목의 중목 합격자와 이 시험의 응시 대상이 96학년도 입학생만이 아니라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현재까지 C.R.S. 인증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300명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는 전체 96학년도 입학생 22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로 휴학중인 학생 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응시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97학년도 이후 입학생을 대상으로 98학년도 1학기에 1차 C.R.S. 인증시험을 실시한 수원캠퍼스의 경우도 영어분야 5명, 전산분야 9명만이 합격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응시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학교측의 홍보 부족도 될 수 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사정이야 의견 최대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추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문리대에 재학중인 정수현(물리 96)양은 "응시자 중심의 실질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학교측의 자세는 분명 현명한 판단이다.

그러나 반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분명 무용지물이다. 제도 구축 당시 적극적 자세로 발전적인 운영 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해야 할 것이다.

(강남이 기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정원	서울 캠퍼스 (우: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 961-0095, 961-0093-4 FAX 962-7718
주 간	최상진	수원캠퍼스 (우: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 741-5701, (교환: 2056, 2880) 직통 (0331)201-2056, 2860 FAX (0331)204-8121
편집장	최수정	
인쇄인	최영희	
인터넷 대학주보	http://news.kyunghee.ac.kr	
인터넷 전자메일	zpiknews@chollan.net khnews@unitel.co.kr	
구독료 / 1년 1만원	구독문의 / 961-0093~0094	



도깨비 장터 결산공고

지난달 13·14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도깨비 장터에 참여해 주신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터를 통해 경희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팔리지 않은 물건의 주인은 대학주보사를 방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6월 ~ 3월 오후 7시까지 서울캠퍼스 대학주보 편집실>

<경희발전기금 기부>

개인별 기부액

- 조정원 총장 10만5,000원 기부
- 김수근 부총장 2만원 기부
- 김병목 기획조정실장 5만5,000원 기부
- 서정식 교무처장 1만 원 기부
- 최상진 신문방송국장 3만7,000원 기부
- 강인애 교수 1만7,000원 기부
- 김윤화 교수 3만원 기부
- 김영동 교수 8,000원 기부

- 이석우 교수 4,000원 기부
- 신용철 교수 5,000원 기부
- 김준현 기획조정실 1만8,100원 기부
- 오태경 대외협력실 1만원 기부
- 강필정 사회교육원 3만3,500원 기부
- 손종준 부총장비서실 9,000원기부
- 교무과 3만6,000원 기부
- 대학주보 9,700원 기부

총 40만7,300

<물건 찾아가세요>

- 경희학교실 ●강필정 사회교육원
- 손종준(부총장비서실)
- 우혜정 ●HAM
- 황보차임 ●장승현
- 장기영 ●최영우

한국어 · 한국문화 우리가 알린다

중국내 한국어학과 학생 9월부터 6개월간 우리학교서 한국어 연수

중국의 한국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한국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98 중국 한국어학과 대학생 한국어 및 한국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우리학교가 담당, 운영하게 된다.

한중간의 무역 증대로 중국내 한국어 학교는 물론,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이번 행사는 기존에는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실시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발전적 모습이 크게 어필돼 중국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북한보다 선호하도록 만들어 우리학교로 이동,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제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우리학교에 단독 개설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차원 국제교류 활성화 및 중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과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북경대학, 중앙민족대학 등 18개 대학생 25명이며 연수기간은 오는 9월부터 99년 2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학교 홈페이지 내용 개선 안돼

행정부서 안내 부실, 수원 중심 운영 문제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 대부분 작년 그대로이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학교안내' 항목 중 행정부서를 보면 서울캠퍼스의 행정부서의 내용이 대부분 5줄을 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부서의 설명이 충실하고 구성원과 체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여준 수원캠퍼스는 전화번호

국번이 201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전의 280번으로 표기되어 있다. 교내시설 이용안내 홈페이지에서는 매점이나 매장 등의 시설에 대한 연락처가 누락된 것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취업정보와 유학정보 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 링크만 되어 있을 뿐 자체적인 정보는 3개를 넘지 못했다.

새로운 항목에 대한 추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교내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학교에 관심을 갖고 접속한 고등학생들이나 타 대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정보처리센터 홈페이지 담당 이현국씨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없이 홈페이지 내용의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맥 섬유, 섬유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증

우리학교와 산학연 협동 공동개발 프로그램

(주)한맥섬유와 전산과 체육삼교수의 산학연 협동으로 국내 섬유디자인 소프트웨어 'JPaint DesignPRO'가 개발되었다.

(주)한맥섬유는 이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30개를 섬유공학과에 양도했으며, 지난 27일 공개 화상실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가격은 1개당 2천만원 정도며 기존 수입 프로그램의 절반 이하 가격이다. 또한 무늬를 스캔하여 변형할 수 있는 등 기능도 다양하다.

(주)한맥섬유 최재혁 대표이사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 잘 사용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학 후 정리된 캠퍼스 모습 보인다

공사 대부분 2학기전에 마무리

현재 진행중인 수원캠퍼스 공사 대부분 이번 여름방학 중 완공된다.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도열실습동은 오는 3월 도열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타일이 공급되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며 기숙사인 우정원 역시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2학기부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아태국제대학원은 방학중에 골조공사가 끝날 예정이며 멀티미디어관도 2학기 말 완공된다.

또한 방학 중 보도와 차도가 정비되고 체대의 보일러를 교체한다.

산업대 육상 방수공사와 중앙도서관 은수기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유니트 세공공사 역시 방학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프록시 서버 개선

지난달 18일부터 설치된 프록시 서버로 인해 교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정보처리센터는 여론

수렴을 통한 접속방지 대상 사이트 등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처리센터 유봉렬씨는 "프록시 서버 구축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프록시 서버는 단순히 학생들의 음란 사이트 접속을 방지하려고 설치된 것만은 아니며, 현재 학교측이 준비중인 전자절제 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설치된 것이다.

정동성 동문

제19대 동문회장에 재선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타워호텔 본관에서 개최된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정동성 총동문회장이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재선됐다.

이번으로 3대째 총동문회장을 연임하게 된 정 동문은 체육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국교원 방중 강좌 수강료 할인

국제교육원(국교원)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모든 강좌의 수강료를 인하한다.

국교원의 이와 같은 방침은 IMF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조정된 수강료는 이전 수강료의 75%-80% 수준이다.

이번 방학에 국교원이 개설할 강좌는 영어 회화, 중국어, 일본어, 토익, 토플, 영어청취이며 각 강좌는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다.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8주간 열리는 이 강좌의 접수는 국교원 1층 교학부에서 6월 15일까지 받는다.

KSGI 인권 사진전

경희대학교 한국 창가 학회(KSGI)는 '인간주의 세기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야..”

경희의료원 윤전기사 장길환(56)씨 시신기증 약속

"내 몸이 힘들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어"라는 한 마디로 결렬 웃어넘기는 장길환 씨.

그는 작년 5월 시신기증증서에 도장을 찍은 후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가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경희 의료원 검진치료를 운전하며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10여 년. 고성, 양구, 철원 등에 무료진료가 있을 때마다 열 일 마다하고 참여해 온 그는 '한바탕 봉사단'의 창립회원이기도 하다. 사후 7시간 안에 의료원과 연락이 닿을 경우, 그의 각막과 콩팥등은 이식을 위해 기증되며 나머지는 생리화 교실 연구대상으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시신기증 증명서

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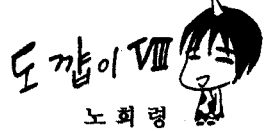
"시체도 수입해서 쓴다"는 말을 듣고서 학교와 병원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신기증을 결심했다는 장길환 씨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할 때가 가장 곤혹스러웠다고.

"물론 반대도 많았지. 마누라하고 아들이 어찌나 말리던지... 그러나 지금은 모두들 자랑스러워 해, '라고 말하는 그는 말만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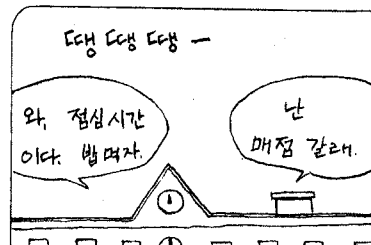
아무런 조건없이 교육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한 것이 다른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계속해서 제2의 장길환이 나온다면 더욱 바랄 게 없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씩 웃음이 배어 있었다.

(김현종 기자)

(제280회)



노희령



<1면 경희 space기사에서 이어짐>

용역업체에 보안을 맡기고 있는 천문대의 경우도 지난 23-25일 사이에 컴퓨터 본체 2대를 도난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관리과 진지규과장은 "도난사고의 대부분이 학생자치공간에서 발생하고는 있다. 그러나 24시간 학생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학생자치공간의 순찰과 출입제함을 실시할 경우 학생자치활동의 침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특히 컴퓨터 보급이 본격화된 1·2년 전부터 학내의 컴퓨터 도난 사건이 점점 증가되어 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순찰강화와 함께 3월부터 모든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범인검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자치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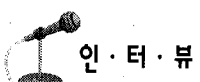
사회대 경영학부 3명

'LG 21세기 선발대'에

사회대 경영학부 김호기(92)군, 심교현(90)군, 권유진(94)양이 '98 LG 21세기 선발대'로 선정,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으로 탐방활동을 떠난다.

이 팀은 '패광지역 카지노 성공의 열쇠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기획안을 제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기 팀장은 이번 탐방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취업이 어려운 지금 개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이와 같은 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와 기틀을 마련을 위한 대내외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LG 21세기 선발대에는 90팀 선발에 779팀이 지원, 26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인·터·뷰

□ 제 54차 UN세계인권위원회 인턴 김상일(아태국제대학원 경영 1기) 군

“국제화 시대, 이제 세계를 무대로”

동하고 돌아온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나이, 지역의 차별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인권 보호는 성별, 나이, 출신지 등 인간의 의지로 선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때"라고.

또한 "우리나라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물질적인 경제성장에만 몰두해 온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전문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국내인권신장을 위한 과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무부 인턴 1호였던 김군은 UN한국 대표부의 인턴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언어의 장벽과 전문성의 부족을 가장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외국 대표단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최소 2개국어 이상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각 분과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자국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대표단은 언어의 벽에 부딪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도 한국에서 경희의 위상에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경희, 세계 속의 한국

을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거대한 아시아의 일부로 인식돼 있을 뿐이며 이같은 국제 현실에 비춰볼 때 국내에서의 순위 다툼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가장 큰 난관은 인턴이나 해외 기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군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아같은 역할을 담당해 학생들의 해외 인턴쉽 참가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군은 "학생들도 이제 세계무대로 눈을 돌려야 하고 국제활동을 위한 외국어 등의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택 기자)